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5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4. 10. 31.(금) 09:1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최성준 위 원 장
허원제 부위원장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4인)

- 불참위원 : 김재홍 상임위원 (국외출장으로 불참)

제5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09시 1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성원보고해 주십시오.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재홍 위원님께서는 국외 출장 관계로 오늘 불참하셨습니다. 오늘 방청은 총 7명이 신청하였습니다.

2. 국민의례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4년 제5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서면회의 결과 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제49차 서면회의 결과, <의결안건> 1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서면회의 결과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이 공개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2015년도 공익채널 선정(안)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안)에 관한 건 (2014-50-168)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2015년도 공익채널 선정(안)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2015년도 공익채널 선정(안)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안)에 관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2015년도 공익채널 선정(안)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공익채널 선정(안)의 경우에는 공익성 방송분야별로 3개 채널, 총 9개 채널을 공익채널로 선정한다’입니다. 사회 복지 분야는 소상공인방송, 한국직업방송, 육아방송이며, 과학·문화 진흥 분야는 아리랑TV, 사이언스TV, 예술TV Arte, 교육 지원 분야는 EBS 플러스1 수능전문, EBS English, EBS 플러스2 중학/직업 분야입니다. 육아방송에 대해서는 공익채널 선정신청서의 자체제작 및 본방 편성 비율의 이행계획을 ‘14년 11월 1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조건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안입니다. 복지TV를 장애인복지채널로 인정하고, 시청자에게 HD방송이 조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장비구축 계획을 ‘14년 11월 1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조건을 부과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안건의 제안이유는 방송법 제70조제3항,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56조의2에 따라 2015년도 공익채널 선정(안)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안)을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추진 경과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채널 심사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익채널 선정(안)의 경우에는 심사결과, 총점 65%(650점) 이상을 획득하고, 심사항목별 배점의 40% 이상 획득한 채널 중 방송분야별로 고득점 순으로 3개 이내로 선정하였습니다. 사회 복지 분야의 경우에는 8개 방송사가 신청하였는데 소상공인방송, 한국직업방송, 육아방송이 650점 이상을 획득하였고, JBS, 국방TV, 한국청소년방송, 소비자TV, 실버아이가 650점 미만을 획득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과학·문화 진흥 분야는 4개 방송사가 신청하였으며, 아리랑TV, 사이언스TV, 예술TV Arte가 650점 이상 그리고 북티비가 650점 미만을 획득하였습니다. 교육 지원 분야는 3개 분야가 신청하였습니다. EBS 플러스1 수능전문, EBS English, EBS 플러스2 중학/직업 방송 모두 650점 이상 획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심사위원회 건

의사항입니다. 공익채널 신청사업자의 사업능력에 대한 정교한 평가를 위해 ‘공적 책임의식 및 사업수행능력’ 심사사항을 분리하고 ‘사업수행능력’ 심사사항 배점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익채널 선정신청서에 경영목표, 신청채널의 시장분석 및 경제성 분석 등을 반영하는 등 경영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일부 공익채널 선정사업자의 경우 별도 법인화를 통해 제작 전문인력 확보 및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성도 지적되었습니다. 육아TV는 과거 선정신청서상의 자체제작 및 본방 편성 비율보다 실제 구매 및 재방 편성 비율이 높으므로 공익채널 선정신청서의 자체제작 및 본방 편성 비율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공익채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채널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 총점의 70%(700점) 이상 획득하고, 심사항목별 배점의 60% 이상 획득한 채널 중 고득점 순으로 3개 이내로 선정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 복지TV만이 유일한 신청자였으며, 인정기준을 충족하므로 장애인복지채널로 인정하는 안입니다. 이와 관련한 심사위원회 건의사항은 복지TV는 시청자에게 HD 방송이 조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장비구축 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장애인복지채널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선정서와 인정서를 곧바로 교부토록 하고, 대상사업자의 분기별 운영계획서를 금년 말에 접수하여, 운영실적을 매분기별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고삼석 위원님 심사위원장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고 계속 안건을 올리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선정안이 잘 된 것 같습니다. 2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국방TV가 650점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국방TV는 연혁과 업력이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수가 좀 낮게 나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기본적으로 국방TV를 채점할 때 심사위원 간 논의가 많았습니다. 국방TV 프로그램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국방TV의 신청분야 자체가 공익채널에 신청하는 것보다는 공공채널 분야에 신청하는 것이 적합하다, 국방TV라는 부분이 공익채널까지 잡식을 하면 다른 민간 PP 자체의 룬이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공공채널에 들어가는 부분이 더 적합한 것 같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점수가 낮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는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도 있고 최근의 병영 문화 개선 등등 해서 이런 분야도 그것이 공공채널이 됐든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검토할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부가 하는 지금 말씀하셨던 공공채

널 인정은 시기적으로 언제 합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미래부가 하는 공공채널은 한 번 인정이 되면 계속 가는 것입니다. 절차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없는 상태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전에 미래부가 인정하는 공공채널과 우리가 하는 공익채널 간의 개념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질문했었던 것은 미래부가 하는 공공채널 인정과 우리가 하는 이 2가지 선정 내지 인정이 스케줄상 같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최소한 그런 생각으로 질문을 했었는데 미래부와 함께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저희와 미래부가 같이 공공채널, 공익채널 부분에 대한 제도를 개선해야겠다는 것은 공동연구반을 구성해서 작업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 의견은 공공채널 분야가 성격상 방송통신위원회 쪽에서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아서 저희 생각 같아서는 그 업무를 우리 위원회로 이관 받아서 그 일을 같이 운영해야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빠진 부분도 없고 전체적인 효과도 많이 낼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공공채널 분야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04년도, '07년도 두 번에 걸쳐서 3개만 지정해 놓고 그 후로는 아무런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이번에 공익채널로 들어온 부분의 상당 영역이 공공채널로도 분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쯤에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 부분에 대한 제도를 정립해 가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어쨌든 최소한 PP 입장에서는 공공채널로 인정을 받을 것인지, 공익채널 내지는 장애인복지채널로 선정 내지 인정을 받을 것인지 3가지 제도를 같이 놓고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분야가 어디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부처가 약간 공급자 중심으로 하다 보면 PP 입장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혼선을 줄 수 있습니다. 계획이 나오는 대로 여기도 넣어보고 또 저기도 넣어보고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미래부와 업무조정을 하는 연구결과가 나오면 업무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부가 인정하고 있는 공공채널도 저희가 가져와서 공익채널과 함께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안인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것이 여러 상황상 또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차선택으로 이미 이기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공익채널 선정할 때 미래부에서 그것을 못 가져온다 하더라도 공공채널 선정도 심사위원회를 따로 구성하든 같이 구성하든 관계없는데 같은 시기에 해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적합한 것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차선택도 마련해서 제도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원제 부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니까 다 눈에 익은 채널들이 선정됐는데 이번에 선정된 3개 분야에 새로이 선정된 곳이 있습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새로이 선정된 곳은 없고 순위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우리가 선정하는데 연속으로 매년 뽑으니까 3년이면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런 내부의 규정이 있습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런 것은 없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쪽 3년, 5년 이 정도 이런 채널로 인정해서 SO 측에서 그동안 쪽 운용하다 보면 '아, 이 채널은 안정적으로 자기들이 대처할 수 있겠다'라고 되면 거기는 이렇게 선정을 해 주지 않아도 아주 강력한 채널로서 론칭이 되고, 또 새로운 채널들을 발굴해서 또 그쪽에 이런 일종의 혜택을 주는 시스템도 우리가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떤 특정 채널을 5년, 10년 계속 이렇게 하면 이 제도의 의미가 잘못하면 조금 퇴색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새로이 발굴해 주는 그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이번 심사는 지난 9월에 의결해 주신 기본계획에 따라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과거 것을 분석해 보고 일종의 졸업제도 도입이 필요한지 내년도 기본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내년에 기본계획을 세우실 때 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공적책임의식 및 사업수행능력 심사사항은 분리하고 사업수행능력 심사사항 배점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 경영목표, 그다음에 선정채널의 경제성 분석 등을 신청서에 반영해서 경영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개선했으면 좋겠

다,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되어서 내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리고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비슷한 측면에서 공익채널 중 육아방송의 경우에는 '자체제작 및 본방 편성비율의 이행계획을 11월 10일 제출하고 성실히 이행을 할 것' 이렇게 조건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짐작컨대 11월 10일까지 당연히 제대로 된 그런 이행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리라고 예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행계획서가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이를 성실히 잘 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매년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니까 시간이 길면 모르겠지만 사실상 중간에 이행여부를 점검해서 선정을 취소하기가 실질적으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내년 기본계획을 세울 때 종전에 선정이 됐었는데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곳은 아예 자동 탈락시키는, 그러니까 중간에 우리가 취소는 못 하지만 다음년에는 기회를 주지 않는 쪽으로 강력하게 해야만 이행계획이 잘 준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행계획도 적당히 하고 다음에 또 다시 새로운 계획 잘 세워서 또 선정되는 것이 반복될 것 같으니까 그런 점에 신경을 써서 기본계획을 다시 가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과장님이 지적하신 이유로 국방TV가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데 그 항목이 어느 항목입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신청분야의 적합성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신청분야의 적합성에서 공익채널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에 대한 소명이 적절히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도 공익채널을 신청하면서 공공채널 같은 이야기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부분은 연구반의 결과에 따라 저희가 정리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또 없으십니까? 심사위원장 하셨던 고삼석 위원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 고삼석 상임위원

- 국장님,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지만 심사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제가 한두 말씀을 더 추가해서 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공공채널과 공익채널의 경우는 앞서 말씀 드렸듯이 미래부와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는 것이 보통 다른 부처, 부처의 산하기관들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채널의 경우 3개 정도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상당히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들께서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그런 말씀

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이것은 정부 내에서 조정을 해 주어야 하는 사안이지, 심사위원들에게 넘겨서 이것이 공익채널로 적합하나, 적합하지 않으나 이것을 심사해 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심사할 때에는 미리 이것이 공공채널에 들어가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공익채널로 심사를 받아도 되는 것인지 저희가 미리 좀 할 수 있다면 교통정리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느낀 것은 지금 공공채널이 있고 그다음에 공익채널 제도가 있습니다. 앞서 지난번 저희가 PP산업 육성계획을 발표할 때는 '견실한 중소PP를 선정해서 채널을 확보하는데 지원을 하겠다' 이런 정책방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료방송, 즉 케이블 TV나 위성방송, IPTV 같은 경우를 보면 채널편성권은 사업자의 고유한 권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익성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부분과 사업자의 자율성 간의 적절한 조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들을 해 봅니다. 즉, 과도하게 많은 공공·공익채널, 거기에 견실한 중소기업 채널까지 정부가 요구를 한다면 플랫폼사업자들의 채널편성권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심사위원 건의사항을 보니까 매년 반복적으로 나온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심사계획과 평가기준을 세워서 저희들이 심의할 때는 좀 더 강화된 내용으로 해서 심사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공익채널 선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 부분은 조건으로 부과된 것은 아니지요? 심사위원회 건의사항 중 세 번째, 일부 공익채널이라고 해서 소상공인방송과 한국직업방송의 경우에는 '별도 법인화를 통해 제작 전문인력 확보 및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필요', 이것은 조건은 아니고 그냥 건의사항인 것 같은데, 소상공인방송과 한국직업방송은 다른 더 큰 형태의 법인의 한 업무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그런 식으로 정부산하기관 내에 있는 공단 내에서 운영하는 하나의 부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은 좀 더 안정적으로 되려면 하나의 별도의 법인 형태로 방송사를 구축해서 하는 것이 전문인력도 확보하고 그런 전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저희 심사항목에 별도의 법인화가 되어 있는지 여부, 그런 것은 없습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사업계획서 전반을 보면서 소상공인방송과 한국직업방송이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좀 더 안정적으로 콘텐츠 공급을 할 때에는 별도의 법인화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그런 별도의 법인화도 심사항목의 하나로 넣는 것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적극 노력 필요' 그러면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좀 가벼이 생각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지금 재허가·재승인 받는 방송사업자들의 경우에 심사항목과 그다음에 심사배점 등에 관해서 올해 내에 미리 정해서 고지해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맞춰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도 예년에 비추어 보면 또 심사 한두 달 전에 저희가 기본계획으로 '이러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심사한다' 그렇게 해서 알려주게 되는데 이것도 같이 이미 심사가 끝났으니까 내년 10월에 들어가지만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심사를 하겠다고 해 놓으면 각 사업자들이 거기에 맞춰서 미리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미 또 선정된 방송사들의 경우에는 그것에 맞춰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2가지 효과를 다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검토하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한 말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별도 법인화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전문인력 확보나 투자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제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별도 법인화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역량 강화나 전문인력 확보가 별도 법인화를 해야만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소상공인진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이런 것은 다 공공기관입니다. 그리고 현재 아리랑TV를 운영하는 국제방송교류재단도 공공기관으로서 항상 비용을 절감하고 지켜야 할 규범들이 있는데 거기에 별도 법인화하라는 것이 상충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특히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다른 두 공단이나 재단에 비해 굉장히 적은 규모인데 거기더러 별도 법인화를 하라는 말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 좋은데 '별도 법인화'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만 뒷부분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지 않으나 는 의견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저희 심사항목에 제작 전문인력, 그다음에 콘텐츠 제작 역량을 평가하는 것은 당연히 들어 있겠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들어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그것을 평가할 때 지금 이기주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꼭 별도 법인화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대한 배점을 조정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의미 있게 평가하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되었습니다.

나.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광고판매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건 (2014-50-169)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나> ‘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광고판매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 「방송법 시행령」,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위원회 의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에서 자구, 체계 및 문구수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방송통신위원회 규제 감축 과제 등을 이행하며, 일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경과는 지난 9월 4일 시행령 개정안을 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12일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9월 12일부터 실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기본 방향은 부처,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이 접수되지 않았고 추가로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입법예고안대로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가> 상위법 개정 따른 시행령 개정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KBS, EBS 결산서에 첨부서류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결산 관련 자료제출 범위의 명확성 확보를 위해 결산서 첨부서류를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방송법」 제59조 및 「EBS법」 제23조가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결산서 제출 시 합계잔액시산표, 예산 대비 결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시청자미디어센터 업무 위탁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법인으로 하는 방송법 제90조의2 개정에 따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업무를 위탁하도록 한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나> 지역 민방 등 방송사업자의 편성비율 규제 완화 부분입니다. 지역민방사업자들은 월드컵 등 국민관심기간이 있는 기간에는 월간 단위로 되어 있는 지역 프로그램 편성비율 의무를 준수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등 다른 편성비율은 반기나 연간 단위로 규정하는 데 비해 지역 민방의 수중계 편성비율은 월간 단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애로 해소 및 규제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민방의 수중계 편성비율을 월간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다> 방통위 규제 감축 과제입니다. 첫 번째로 공동체라디오 방송 의무 운영시간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이 안정화되어 1일 평균 15시간 이상 방송을 함에 따라 1일 6시간 이상으로 규정된 의무 운영시간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에 대한 자료요구 규정 삭제입니다. 방통위는 방송

광고판매대행사협회에 대한 감독을 위해 협회에 사업계획서, 결산보고서 등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협회 설립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게 되어 이중으로 방송광고판매대행법의 감독 규정을 적용 받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라>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 등 기타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장애인방송 관련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장애인방송 관련 업무의 위탁 규정은 방송법 시행령에는 규정하지 않고,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령상 근거를 분명히 하기 위해 장애인방송 관련 업무를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사업범위 조항에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방송내용 기록·보존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입니다. 편성비율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송 내용의 기록·보존 업무에 대한 위탁 근거 규정이 없어서 중앙전파관리소에 위탁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광고 관련 과태료 부과 업무를 방통위로 환원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중앙전파관리소에 위탁되어 있는 방송광고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환원하고자 합니다. '14년 예산편성부터 방송광고 모니터링 일부는 중앙전파관리소에서 환원하여 방통위에서 이미 수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일정은 오늘 의결해 주시면 11월 초에 법제처 심사를 거쳐 11월 말에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12월 초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붙임>으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입법예고나 관계부처 협의할 때 의견이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은 대부분 규제 완화, 폐지로서 규제대상 입장에서 보면 다 좋은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이 입법예고가 나가면 통상 우리가 이것을 개정하겠다는 의견이 있다, 없다 말고 '이런 규정도 규제 완화해 주세요', '폐지해 주세요' 이런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혹시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 김동철 방송기반총괄과장

- 이번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리고 두 번째는 과태료 부과 업무를 환원하는 것, 이것이 환원되기 전에 중앙전파관리소에서 몇 명의 인원이 아니면 0.5명..., 담당하는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직원들이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하기 때문에 딱 이 업무만 몇 명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한 2~3명 정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지금 방통위가 직원 1명도 아쉬운 상황에 법령을 개정하면서 업무를 새롭게 가져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잘 카운트를 해서 안행부와 정원 협의할 때 이번에 내년도 인력증원 협의할 때 이것을 빠뜨렸다면 다음번에라도 이것을 꼭 잊지 말고 요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청자미디어센터 관련해서 장애인방송 관련 업무를 사업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업무를 KCA에 위탁했던 규정을 삭제하는 것도 들어있고요.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지금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법인으로 하고자 설립위원회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설립되는 시기와 그다음에 이 KCA에 위탁한 것이 삭제되는 시기가 만일 불일치할 경우에는 혹시 중간에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업무를 총괄할 공백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까?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방송법 부칙에 보면 법인이 설립될 때까지는 KCA에서 운영을 하다가 법인이 설립되면 새로운 법인으로 업무를 이관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건 붙임1의 시행령 개정안 부칙 제2조에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업무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내용은 방송법 제90조의2에 따라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법인으로 설립할 때까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경과조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경과조치가 있으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국정감사를 받으시느라고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과 특히 부위원장님, 그리고 직원 분들께서 내년도 예산 심의를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익히 다들 알고 있지만 그와 관련해서 제가 2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통위 설치법 그리고 방송법 등은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공성 및 공정성 구현을 방통위의 중요한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는 공영방송사 이사회를 비롯한 방송 유관기관에 대한 인사권 행사를 통해 이러한 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KBS 이사장과 KOBACO 사장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임명한 인사들의 자질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방송법 제5조 방송의 공적책임 제2항을 보면 “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간·세대간·계층간·성별 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방통위원들은 물론 공영방송의 이사라면 개인의 소신과는 별개로 그 직책에 있는 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중요한 규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인호 KBS 이사장은 KBS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시 ‘편향된 역사관’에 바탕을 둔 정치적·사회적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인호 이사장은 상근직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 강연 등을 통해 개인적 소신을 계속 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기간방송인 KBS 이사장으로서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적인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요구되는 덕목 가운데 하나는 ‘선공후사’의 자세입니다. 법적으로 요구되는 공적책무와 개인의 소신이 충돌할 경우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할지 그 선택은 상식적으로 자명한 일입니다. 개인의 소신, 역사관도 중요하지만 공영방송 이사장이라고 한다면 방송법에 규정된 대로 국민 화합,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해야하고, 정치적·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역사관을 가지고 국민과 사회를 세대에 따라 좌와 우로, 진보와 보수로 나누고 쪼개는 언행을 자제해 줄 것을 이인호 이사장께 요청합니다. 그리고 높은 경륜과 깊은 학식을 국민의 화합과 사회 통합을 위해 선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국회의 지적도 있었지만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MBC 조직개편과 관련한 말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MBC가 지난 27일 교양제작국을 폐지하는 조직 개편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조직 개편 목적을 보면 “미디어 환경 변화 대응 강화, 수익성 중심 조직 개편,

기능 조정에 따른 조직 효율화”를 제시했지만 한마디로 ‘공익성을 포기하고 효율성과 수익성만 추구’하는 개편이었습니다. 방송광고 매출감소와 같은 경영난 타개의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공영방송인 MBC의 위상과 책무를 포기한 개편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방문진법과 MBC 방송강령에서 방송 목적으로 천명한 “공익 추구,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공영방송의 기본책무를 포기한 것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MBC 바깥에서는 “정권과 자본의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조직으로 MBC를 탈바꿈하겠다는 것이다”, “보도국 무력화에 이은 시사·교양 축소 완결판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MBC 경영진에게 누구를 위한 조직 개편인지, 무엇을 위해 교양제작국을 해체한 것인지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MBC는 몇몇 경영진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권력과 자본의 소유는 더더욱 아닙니다. 공영방송 MBC의 위상과 역할은 정치적·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지고 작동되는 우리 사회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방통법의 규제를 받고, 방통위와 방문진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MBC는 공영방송으로 그리고 국민의 방송으로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 드린 대로 방통위 설치법과 방송법에 따른 방통위의 기본책무는 물론 지난 8월 발표한 정책과제에서 밝힌 방송의 공적책무와 공공성, 공정성 구현을 어떠한 방식으로 실행에 옮길지 깊은 고민과 토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고 적절히 조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다음 회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예산국회 관계로 일정을 별도로 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폐 회

○ 최성준 위원장

- 이상으로 제5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09시 55분 폐회 】